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병동간호팀, 간호상황사례 발표회 열어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병동간호팀은 5월 24일 간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동간호팀 간호상황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병동 내 간호 상황 사례와 효율적인 간호업무의 실천 방안을 공유하며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 입고될 BI-PAP(stellar) 사용설명 및 관리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병동간호팀 내 교육파트에서는 신입 간호사와 재직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부분 중 새롭게 추가된 부분과 진행 중인 연간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다. 업무개선 파트에서는 언어 순화 캠페인Ⅱ, 약제팀 업무협약의 내용 및 개선사항, 간병인 교육 책자 개발 등 2016년 상반기 병동 간호사들의 교육진행 및 업무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회에 참석한 간호사는 “BI-PAP 기계를 직접 작동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간호업무를 하는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간호부 및 병동간호팀에서 간호사들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02 강화도 전등사 이주민 축제 무료진료 다녀와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5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주관 ‘제11회 이주민 문화축제’를 찾아 이주민 약 60여 명에게 무료진료를 펼쳤다.

본원은 1회부터 이주민 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의료혜택이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에게 진료상담부터 침 치료, 투약, 혈압, 당뇨 측정 등을 지원했으며, 이날 의료지원에는 한방여성 의학과 김동일 교수, 한방내과 박봉기 교수, 간호사, 약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아시아는 친구’라는 주제로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과 민속춤 등이 축제의 분위기를 띄웠으며 연꽃 만들기, 한국전통혼례복 입기, 고향에 엽서 보내기 등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이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정지천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주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며,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라고 축사를 전했다.



03 원무팀 입원수속 창구 증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인한 내원객들의 원활한 업무개선을 위해 원무팀 입원수속 창구를 새롭게 증설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위해서 추가적인 동의서 작성과 사전설명이 심화됨에 따라 이번 원무팀 창구 증설은 환자들이 창구에서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을 다소 해결하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신속한 입원 예약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무팀 담당자는 “증설된 창구의 역할과 효과를 최대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04 자이1단지 경로당 방문 한방무료진료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5월 25일 식사동 자이 1단지 경로당에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지난 4월 5일 일산동구보건소와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협약’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졌으며, 약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한방 침 시술 및 건강 상담을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와는 매달 한 번씩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